

길을 잃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두 가지의 경우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우선, 정확한 지도가 없거나 길이 지도와 맞지 않을 때에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확한 지도가 있음에도 지나친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경우 지도를 보지 않고 가다가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기 확신에 차서 길을 가는 남자가 있습니다. 다소 출신 사울이라는 남자입니다. 그는 훗날 사도 바울이 됩니다. 사울은 자신의 신념과 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불렸던 이름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회개합니다. 회심이란,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고 회개란 그 발걸음을 반대로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자기 확신의 좁은 틀에 갇혀서 살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 첫째, 우리는 모두 잘못된 자기 확신에 빠질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1절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은 분명 자기 확신에 차있는 모습입니다. 그는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고 합니다. 원어적으로 이 말은 위협과 살기로 숨을 쉬었다는 말입니다. 매순간 숨을 쉬듯 예수의 제자를 핍박하기 위해 다닌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자기 확신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는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혈통으로는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시 교육 도시로 손에 꼽히던 길리기가 다소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지만 당대 최고의 유대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문하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그를 잘못된 확신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올바른 그리스도의 길(道)로 행하는 자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는 정반대에 서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을 잘못된 확신으로 이끄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안정감을 느낄 때 그것을 주인삼은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잘못된 확신의 자리로 이끌려 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 둘째, 예수님께서 반대로 걸어가던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3-4절을 보시면 자기 확신의 길을 걸어가던 사울이 가던 길을 멈추게 됩니다.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나타나 사울을 둘러쌌다(3절). “사울아 사울아”하는 음성이 들립니다(4절). 훗날 사도 바울은 이 일이 정오쯤에 일어난 일이라고 밝힙니다. 정오의 밝은 햇빛보다 더 강력한 빛이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스스로를 사울이 박해하는 예수(5절)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강력한 빛과 음성으로 사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강력한 예수님의 임재에 사울은 땅에 엎드려지게 됩니다(4절).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십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 사울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음성 앞에 곧바로 엎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길 축복합니다.

### 셋째, 하나님께서는 땅에 엎드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계획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사울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6절)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가면 이제부터 무엇을 할지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상세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줄줄이 말씀하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전체를 보면 사울을 사용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준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이 멀어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사울이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일들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차차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주님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빛 되신 주님의 부르심에 엎드려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모두 아십니다. 사울과 같이 예수님과 정반대로 걸어가던 사람도 능히 구원하시고 회심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한우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 암송

## 이번 주 외울 말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29절)

# 통독

## 이번 주 성경 통독

| 7/10(월)  | 7/11(화)  | 7/12(수)  | 7/13(목)  | 7/14(금)  | 7/15(토)    | 7/16(주일) |
|----------|----------|----------|----------|----------|------------|----------|
| 시116-119 | 시120-130 | 시131-136 | 시137-143 | 시144-149 | 시150, 잠1-4 | 잠5-8     |

# QT

## 이번 주 QT 말씀

| 7/10(월)   | 7/11(화)   | 7/12(수)   | 7/13(목)   | 7/14(금)    | 7/15(토)    | 7/16(주일)  |
|-----------|-----------|-----------|-----------|------------|------------|-----------|
| 행 9:10-22 | 행 9:23-31 | 행 9:32-43 | 행 10:1-16 | 행 10:17-33 | 행 10:34-48 | 행 11:1-18 |

# 나눔

## 목장 나눔 문제

1.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거나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 주세요.
2. 잘못된 자기 확신에 빠져서 실수한 경험이 있나요? 한 가지씩 나누어주세요.
3. 예수님을 만나 땅에 엎드린 경험이 있나요? 한 가지씩 나누어주세요.
4.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어 주세요.